

중고차 수출시장의 부상과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

KATECH Insight

- ◆ 신흥국의 경제성장 등을 동력으로 글로벌 중고차 시장 및 무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, 우리나라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수출에서도 강국으로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도 충분
- ◆ 중고차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 체계를 통한 수요자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완화 및 HW·SW 인프라 집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

» 경제 환경의 변화로 글로벌 중고차 시장 및 무역은 성장 추세를 형성

- 글로벌 중고차 시장은 ①신흥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, ②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성장동력까지 발생
 - 신흥국은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수요도 함께 증대되고 있으나, ①낮은 구매력으로 신차 구매에 어려움이 있고 ②국내 중고차 공급 기반이 취약하여 글로벌 중고차 무역에서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매김
 - * '15년~'20년 글로벌 중고차 수출량 2,300만대 중 약 66%가 신흥국으로 수출(UNEP, 2021)
 - 한편,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신차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경기 둔화가 겹쳐 실질 소비력이 감소함에 따라 중고차 수요가 증대되었는데,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및 심리 위축으로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
- 글로벌 중고차 무역 규모는 '22년 1,020만 대로 '10년 540만 대 대비 대폭 성장했으며, 이후에도 신흥국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
 - 글로벌 중고차 무역은 한국, 독일, 일본, 미국 등 선진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무역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이를 신흥국들이 수입하여 소비하는 구조
 - * 선진국은 구매력이 높아 신차가 선호되고 자국 내 중고차 공급 능력도 높아 수입 필요성이 적으나, 신흥국은 구매력이 낮아 중고차가 선호되며 자국 내 중고차 공급 능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무역 구조가 형성
 - 한편, 이러한 구조로 인해 중고차 시장은 주로 저가 차 거래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신흥국의 구매력 증진 및 환경규제 강화* 등에 따라 일부 무역 거래에서 고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
 - * 중고차의 주행성능과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, 주요 수입국의 안전·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가의 노후 중고차 거래는 감소하고 고가의 중고 친환경차 거래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
- 향후 중고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고차 산업은 그 자체로 성장 수출 산업으로 의미를 가지며 중고차 수출 활성화로 국내 신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 가능
 - 중고차는 신차에 비해 균일성이 낮고 거래되는 상품의 스펙트럼이 넓은데, 높은 다양성으로 인해 수입업자 또는 소비자가 거래하는 상품이 원하는 상태·특성을 갖추었는지 확인·검증해야 한다는 점이 허들로 작용
 -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 변화를 감지·대응하는 것과 함께 이와 같은 거래비용 저감도 중요

» **우리나라는 '24년 수출량 53.3만 대, 수출액 47.4억 달러를 기록한 주요 중고차 수출국*으로, 글로벌 중고차 및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 가능성도 큼** * 승용차만 집계, 승합·화물 제외

- 주요 수출 대상은 중동·아프리카·중앙아시아로 자동차 시장이 중고차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임
 - 수출량 기준 1위는 리비아(12.1만대), 2위는 키르기스스탄(7.2만대)으로 양국이 36.2%의 비중을 차지하며, 수출액 기준 1위는 키르기스스탄(14.9억 달러)으로 31.4%를 차지하며 유일하게 10억 달러 초과
 - 주요 수출 지역별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평균 가격은 각국의 경제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
- * 리비아는 구매력이 낮은 튀니지·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재수출 거점으로 저가 중고차가 주로 수출되는 반면,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재수출 통로로 활용됨에 따라 준수한 상태의 고가 중고차가 주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
- '24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3.7%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6.7% 증가했는데, 평균 수출 단가가 높은 키르기스스탄^向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급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
 - * 일례로 '24년 1,000~1,500cc 휘발유 중고차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11.6% 줄었으나 수출액은 55% 급증
- 전기차(BEV)·하이브리드차(HEV)·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(PHEV) 등 중고 친환경차의 경우에도 수출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수출액은 증가
 - 중고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8,890대로 전년 대비 27.8% 감소해 1만대 미만으로 떨어졌으며, 특히 중고 BEV 수출 대수가 큰 폭으로 하락('23년 5,199대 → '24년 2,143대)
 - 다만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했는데('23년 2억 달러 → '24년 2.4억 달러), BEV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HEV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PHEV 수출도 1,000만 달러 달성
 - 한편, '24년 친환경 중고차 수출 대상국 1위는 요르단(3,321대)이나 친환경 중고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'23년 66.9%에서 '24년 37.4%로 크게 하락하면서 수출처 다각화 조짐도 관찰
- 최근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고급화가 진행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서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데,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사례 분석 및 체질 개선 필요

Ⅱ **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현황** Ⅱ

구분	수출량			수출액			평균 가격 (\$/대)
	'24년(대)	비중(%)	증감율(%)	'24년(백만\$)	비중(%)	증감율(%)	
리비아	121,148	22.7	△17.1	214	4.5	△23.6	1,758
키르기스스탄	71,923	13.5	59.0	1,489	31.4	57.2	20,703
튀르키예	45,013	8.5	0.2	103	2.2	32.7	2,266
러시아	27,999	5.3	8.1	588	12.4	△8.3	21,001
UAE	27,896	5.2	49.8	233	4.9	31.8	8,352
전 세계	532,780	100.0	△3.7	4,743	100.0	6.7	8,900

* 자료: 무역협회

» **일본은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중고차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높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최근 수년간 중고차 수출에서 급속도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음**

- ① [일본] EU 회원국으로 역내 무역에서 강점을 가진 독일 등을 제외하면 중고차 무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우리나라 중고차 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시사점 제공

- 일본은 '23년에는 134만 대를 수출하여 전년비 27% 성장하였고 수출액은 1.16조원으로 전년비 20.6% 증가해 1조원을 돌파했는데, 특히 하이브리드가 급성장
 - 수출에서는 휘발유 차량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편으로, '23년 연료별 수출량(점유율)은 휘발유 약 95만대(70.9%), 하이브리드 32만대(24.2%), 디젤 4만대(3%) 순
- 일본의 중고차 수출은 ①연식에 따른 누진적 세금·비용 구조와 ②'05년 자동차 리사이클법 시행을 계기로 폐차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, 체계적인 성능 검사 운영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위상을 유지
 - 일본중고차수출업협동조합(JUMVEA), 일본자동차사정협회(JAAI) 등은 중고차 성능 진단 후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, 이는 해외 중고차 수입업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됨(KIET, 2024)

Ⅰ 일본의 중고차 수출 현황 Ⅰ

구분	수출량(대)		증감율(%)	수출액(억₩)		증감율(%)
	2022	2023		2022	2023	
내연기관	807,099	990,214	22.7	7,036	8,222	16.9
하이브리드	226,826	323,430	42.6	2,314	3,084	33.3
플러그인 하이브리드	4,744	5,129	8.1	79	70	△11.0
전기	15,606	20,128	29.0	186	216	16.2
합계	1,054,275	1,338,901	27.0	9,615	11,592	20.6

* 자료: e-stats

② [중국] 최근 수년간 중고차 수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신흥 강자로 부상 중으로, 내연기관차 중심의 기존 중고차 강국과 달리 중고차 수출에서 신에너지차(NEV)* 비중이 과반으로 강세

* 신에너지자동차(NEV): 전기차(BEV), 하이브리드(HEV)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(PHEV), 수소차(FCEV) 등

- 중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던 중고차 수출을 '19.4월 허가로 전환하였고 이후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이어지며 연평균 208%의 급속 성장을 이뤄내고 있음
 -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고차 수출 국가별 지침(2021, 2022), 중고차 수출 및 신에너지차(전기차) 수출 통관 지침(2023) 수립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, 특히 품질 관리를 위해 수출 중고차 품질 관련 국가 표준*을 도입하여 외부 검사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수행 등을 의무화
- * 중고 승용차 수출 품질 요구사항(WM/T 8-2022), 중고 상용차 및 트레일러 수출 품질 요구사항(WM/T 9-2022)
- 한편 중고차 수출에서 NEV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으로, '23년 중고차 수출량의 50.3% 및 수출액의 60.6%가 NEV에 해당('23년 NEV 수출량 13.8만대, 수출액 41.7억 달러)
 -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성장과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중고 친환경차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중국 중고차 수출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

Ⅰ 중국의 중고차 수출 추이 Ⅰ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
수출량(대)	3,036	4,703	15,300	69,650	274,534
수출액(천\$)	14,863	20,816	220,738	1,601,837	6,880,303

* 자료: CN-UCEP

» 중고차 수출 확대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도전 속에서 주목할 기회 요소로, 수요자 및 공급자 관점에서의 장애요인을 식별·해소함으로써 중고차 수출 경쟁력 강화 가능

- 미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중고차 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으며, 국내 자동차 시장 및 부품 애프터 마켓 활성화 등 촉매제 역할도 기대 가능
 - 과거 일본은 아세안 시장을 타겟으로 저연식·고성능 중고차 수출을 활성화하였고, 이에 따라 다수의 자동차 소비자가 기존 차량을 중고차로 처분하고 신차를 출고하는 수요 환기 효과가 발생했다는 관점도 존재
 - 한편 친환경차 시대의 본격 개화에 따라 중고 친환경차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, 중고 친환경차 수출 확대는 관련 부품기업의 해외 진출과 생태계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
- 일본 및 중국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,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품질인증 등으로 정보 비대칭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
 - 공신력 있는 기관의 품질인증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의 주요 우려 요인인 높은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면 중고차 수출 확대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,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신흥국의 지속적인 성장 이후 찾아올 신차 수요에서 우선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* 일본과 중국이 자국산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여 이미 활용 중인 만큼, 국내 업계의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라도 품질인증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
- 한편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HW·SW 인프라의 집적도를 높이는 등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
 - 예를 들어 중고차 수출 전용 복합단지 구축 등을 통해, 선적·품질인증 등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수출 복합단지를 구축한다면 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
 - * 수출 기능을 집약한 복합단지 활용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간·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수입·수출업자의 네트워킹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중고차 시장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 - 아울러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 대다수가 정보력의 한계가 명확한 영세 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, 향후 강화되는 글로벌 중고차 수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마련이 필요
 - * 특히 친환경차의 경우 각국의 에너지 및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충전 인프라에 따라 연료별 차량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, 중고 친환경차 수출 확대를 위해선 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정보의 적시 제공이 요구됨